

강진-남양주 다산정신·실학 알리기 손 잡았다

강진 다산기념관-남양주 실학박물관 MOU

다산학단 재조명·신실학 운동 확산 기대

강진 다산기념관과 경기도 남양주 실학박물관이 손을 잡고 다채로운 실학문화 활성화 사업을 펼친다. 박서진 다산기념관장과 김시업 실학박물관장 등 양측 대표 10여명은 11일 다산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동 사업을 활성화해 수준높은 문화 교류를 공동 수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다산 선생의 화풍이 살아 숨쉬는 다산기

념관과 다산 선생의 고향인 남양주에 위치한 실학박물관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협약은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실학(다산문화) 관련 콘텐츠 등 모든 분야의 교류 활동을 담고 있다.

구체적 교류 내용은 ▲박물관 전시·교육 관련 교류 및 정보 공유 ▲ 학술출판물 등 양 기관의 사업 관련 각종 정보 및 결과물 교환 ▲실학 및 다산학 분야의 공동 연구 및 심포지

엄 개최 ▲실학자 후손과 학술기관 및 단체 등 실학네트워크 구축 협력 ▲이와 관련된 마케팅 사업 공동추진 등이다.

양측은 협약 첫 사업으로 강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산학단(茶山學團)을 재조명하는 순회 전시회를 계획 중이다.

순회 전시회에서는 '다산과 그 제자'라는 주제 아래 특히 다산의 외손자로 다산학의 계승자인 방산 윤생기(1814~1879) 선생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19세기 실학의 현재를 다각도로 재조명할 방침이다.

박서진 다산기념관장은 "올해 다산기념관 규모를 확대해 신축·개관할 예정"이라며 "양 지역간 문화적



강진 다산기념관과 경기도 남양주 실학박물관은 11일 다산기념관 세미나실에서 다산실학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강진군 제공>

교류 협력의 활성화는 물론 신실학(新實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

장흥 칠거리 상권 활성화 '문화 벼룩시장' 22일 개장

침체된 장흥 칠거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알뜰소비를 권장하기 위한 '문화 벼룩시장'이 오는 22일 개장한다.

'장흥 칠거리 문화 벼룩시장'은 장흥읍사무소 앞~상설시장 입구 구간 상가도보변(150m)에 ▲일반인 벼룩시장 코너 ▲계절별 테마물품 코너 ▲생태체험 코너 ▲귀농인 코너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운영된다.

일반인 코너는 주민들이 집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와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고, 테마코너는 관내 학생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참고서와 학용품 등 나눔 장터를 운영한다.

귀농인 코너는 귀농인들이 사 용하거나 직접 만든 예술품을 판매한다.

1980년대까지 '장흥의 명동거리'로 불리던 장흥읍 칠거리 상권은 1972년 부산~순천간 남해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1975년 부산~장흥 수문포~목포가 해운여객선 운행이 폐쇄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부산에서 의류와 일용잡화 상품을 반입하는 장흥읍 재래시장 도매상들이 없어진 때문이다.

군은 현재 장흥읍 칠거리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이유식 이렇게 만들어요"

담양지역 주부들이 최근 군 보건소(소장 조영순) 주관의 '영양플러스 영양식' 교육에 참가해 이유식과 간식 만드는 법 등을 배우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먹는 각종 식품에 대한 효능과 이용법에 대한 강의도 병행됐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나주 혁신도시~원도심 셔틀·순환버스 운행

나주 빗가람 혁신도시와 원도심간 환승 교통체계가 대폭 보강됐다. 나주시는 혁신도시로 이주한 기관 임직원과 아파트 입주민 및 등·하교 학생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임시셔틀 버스를 10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에 들어갔다.

또 4월 1일부터 혁신도시에서 나주시내를 지나 목사골 시장을 종점으로 한 순환버스도 하루 3회(왕복 15회)를 30분 간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KTX와 광역 대중교통망을 연결하는 버스는 혁신도시에서 나주역, 영산포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해 수도권으로 가는 시간에 맞추어 1일 14회(왕복)를 순환 운행한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강진 개불축제 관광객 2만명 매출 2억

개의 불알처럼 생겼다 해 '개불'이라는 이름이 붙은 강장식품이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개불은 만조매는 바닷물에 잠겼다가 간조 때는 드러나는 조간대의 모래흙탕이나 모래와 자갈이 섞인 연안의 사니질 속에 U자 모양의 깊은 구멍을 파고 산다. 흥취한 생김새와 달리 글리신과 알라닌 등의 단맛을 내는 물질을 비롯해 영양이 풍부해 강장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강진군 신전면 사초마을 주민들이 지난 8~9일 겨울철 별미인 개불 축제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처음 열린 개불축제장을 관광객 1만6000여명이 다녀갔고, 매출액도 2억1000만원 을 기록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이번 축제에서 3만원 가격의 개불 20마리(400g 기준) 상자가 5500개 팔려 1억65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낙지 등 농·특산물 판매와 먹거리 장터 운영으로 4500만원의 판매고를 보였다.

이는 9일간 열리는 강진청자축제 청자매출액 4억5000만원과 마량 미향축제(3일 진행) 직접 판매액 1억 2000만원에 비해 월등한 소득이다.

이번 축제를 통해 개불축제가 주민 소득과 직결되고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하는 경영형 축제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은 이번 축제의 경제적 소득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성과를 파악한 후 더욱 발전된 축제개 최를 위해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전북

"월영습지 보호구역 조속 지정을"

"자연생태계 잘 보존" 정읍시, 환경부에 건의

정읍시는 최근 환경부에 성산동·쌍암동 일원의 월영습지를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는 월영습지가 육화(陸化)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라도 습지 보호지역 지정은 꼭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내륙에 분포돼 보존 가치가 높은 월영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자연생태 현장을 널리 알리는 물론 이를 내장산

국립공원과 도보길인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과 연계한 생태관광 자원화를 추진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밀조사 결과 월영습지에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인 구렁이·수달과 II급인 말뚝가리·수리부엉이,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등 총 118과 259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읍시 관계자는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환경부에서 토지 매입과 방문객 센터 건립, 습지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백제가요 '방등산가비' 제막식

고창군과 고창문화원은 11일 방정산역새봉에서 백제가요 '방등산가(歌) 비' 제막식을 가졌다. 방등산가는 도적에게 붙잡혀간 여인이 자기를 구하려 오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며 불렀다는 백제가요이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kwangju.co.kr

중고 농기계 사고 팔기 쉬워진다

순창농기센터, 소개소 운영

순창에서 중고 농기계 사고 팔기가 쉬워진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는 11일부터 중고 농기계를 필요한 농업인에게 알선해 주는 '중고 농기계 소개소' 운영에 나섰다.

기계화 영농이 보편화되면서 현재 순창 지역에 ▲경운기 4024대 ▲트랙터 1283대 ▲콤바인 458대 등 농기계 1만 2224대가 보급돼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중고 농기계를 헐값에 팔려는 농업인과 구입하려는 농업인을 서로 소개해주는 곳은 없는 실정이었다.

센터는 '중고 농기계 소개소' 운영

에 따라 농업인의 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의 농기계 이용률 향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영농 자재값 인상 등 경영 압박으로 인해 고가의 새 농기계를 구입하는 대신 사용하지 않는 중고 농기계를 구입하려는 농업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중고 농기계를 팔거나 사고자 하는 농업인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063-650-5141)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남원, '문화도시' 선정 ... 38억 지원 받아

전국 최초 '오감 만족형' 문화 인프라 구축

지난 1월 전국 최초의 '문화도시'로 선정된 남원시가 오감만족형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문화 르네상스' 시대를 펼쳐나간다.

남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4년 '문화도시'로 선정돼 사업비로 매년 7억5000만원씩 5년간 총 38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의 특화된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남원만의 문화 콘텐츠와 73개 동호회가 참여하는 주민 참

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문화적인 시민역량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관소리 동원제와 춘향전, 흥부전, 만복사 저포기,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국보 제10호) 등 279점의 유·무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는 국비를 지원받게 돼 각종 문화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남원 예촌과 김병중 시립 미술관, 설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남원 도예촌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시가 전국

에서 처음으로 '문화도시'에 선정된 것은 풍부한 유·무형 문화자원과 지난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신관사포 부임행사, 전통 상설공연가인촌향, 한여름밤의 소리여행, 초·중·고 수확여행단의 국악체험 등이 호응을 받은데 힘입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사업이 아닌 주민참여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단신

전주, '시민 무료 자전거교실' 11월까지 운영

전주시와 전북 자전거가기 운동본부 전주지부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월~금요일(오후 2~4시) 덕진동 종합경기장 자전거 교육장에서 '시민 무료 자전거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자전거 교실은 기초반과 지도자반으로 나눠 ▲자전거 이론과 실기 ▲교통안전 ▲올바른 자전거가

기 문화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자전거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매주 교육현장에서 접수가능하다. 시민 무료 자전거교실은 지난해까지 9000여명이 수료해 안전한 자전거타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문의(063-232-5561)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남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남원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중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추가 모집기간은 19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형 4명이다. 추가로 선발된 장애인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일자리 위탁기관 장애인 복지관에 배치돼 환경도우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참여자격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보조금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문의(063-620-6203) /남원=백선기자 bs8787@

정읍자생식물연구회 '우리꽃 자생화 전시회'

정읍 자생식물연구회(회장 이용환)는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농경문화체험 교육관에서 '우리꽃 자생화 전시회'를 연다.

"한라에서 백두까지~우리꽃 자생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자생화를 활용한 목부작과 석부작 분경을 비롯해 '백두산 만병초' 등 희귀

식물도 다수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자생화 사진과 자생화를 소재로 한 시화 등 50여점도 전시될 예정이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꽃 자생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읍 자생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서 회장기 전국 정구대회 개최

제35회 회장기 전국 정구대회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순창공설운동장과 제일고 정구장에서 개최된다.

대한정구협회가 주최하고, 전북도 정구연맹(회장 조경주)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초·중·고 대학·실업·장년부 선수 1500여 명이 참가해 남

녀단체전, 남녀 개인전(단·복식), 혼합복식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황숙주 군수는 "올해 첫 최대규모의 전국 정구대회를 순창에 유치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오는 9월에 열리는 도민체전의 사전준비 차원에서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말했다.순창=이동희기자 dhlee@